

정토회원의 교역자화에 관한 小考

권도갑 총무분과 전문위원

목 차

1. 머리말 - 정토회원은 누구인가.
2. 정토회원에 대한 교단의 관심
3. 일반교당의 지도자로서의 정토회원
4. 전무출신 내조자로서의 정토회원
5. 맺는말

1. 머리말 - 정토회원은 누구인가

정토회원은 원불교교역자의 권장부이다. 대부분의 정토회원은 가정의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가정생활을 전담하며, 일반가정에서 남편이 해야 할 부분들까지 함께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성직자의 아내로써 모범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산다.

직장생활을 무리없이 수행해야 하고,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책임지며, 부모를 모셔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1인 3역 이상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상에서 정토회원의 삶을 간단히 정리해 보아도 정토회원, 그 자체가 그 대로 교역자의 삶 그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지켜볼 수 있다.

정토회원은 묵묵히 전무출신의 뒷편에 서서 한없는 헌신과 내조를 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는 참으로 독특한 성직자와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정토회원의 교역자화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올바르게 수행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제 교단은 정토회원의 삶에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이들을 도우고 격려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들의 삶 자체가 곤경에 처해 있음을 외면하고 오히려 정토회원을 교화활동에 활용만 하려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렵게 가꾸어 가고 있는 가정이야 말고 가장 소중하고 근본적인 교화활동의 산실이기 때문이다.

2. 정토회원에 대한 교단의 관심

정토회원의 의식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정토회원 의식 조사 연구 P 154-155 참조) 많은 정토회원들이 다음 생애는 대체적으로 정토회원이 되지 싶지 않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힘겹고 어려운 정토회원의 삶 보다는 차라리 교무가 되어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의 삶이 고달프게 젖어오고, 스스로 정토회원의 삶에 긍지를 잃는다면 이것이 바로 남편인 전무출신의 삶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차츰 고결한 서원에 힘을 잃고, 정신이 가정생활에 빼앗겨서 정상적인 전무출신의 삶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누적되는 생활고와 현실의 어두운 상황 때문에 정토회원의 기본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 위의 조사서에서 젊은 정토회원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생활이 괴롭다”, “의기소침해진다”, “공연히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전무출신 가정에 위험신호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바깥 세상은 정신과 물질의 풍요를 함께 누리며 발전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정신적인 면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물질의 풍요도 함께 누리며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정토회원들은 과연 어떻게 제자리를 지키고 스스로 긍지를 느끼며, 보람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토회원이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정토회원에 대한 교단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일반교당의 지도자로서의 정토회원

인간은 스스로 자력을 세우고, 자신의 일에 긍지와 보람을 갖는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지금 정토회원의 삶은 객관적으로 볼 때 실로 가혹한 삶이 아닐수 없다. 이런 중에 정토회원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정토회관이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음을 필자는 지적하고 싶다.

정토회는 일년에 한두차례의 훈련과 친목활동을 통해 실력을 함양하고 상호격려하는 모임으로 족하다. 함께 법회를 보므로써 서로 생활을 비교하게 되고, 서로 상처받기 쉬우며 의욕을 잃고 끌려가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모든 여건으로 보아서 교단과 정토회관이 정토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데 오히려 정토회원이 교단과 정토회관을 지원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만약에 정토회원이 이리 지역 일반교당에 자유롭게 다닐수 있게 된다면, 일반교도들로부터 전무출신의 사모님으로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역할과 이들이 지닌 능력으로는 한사람 한사람 훌륭한 재가 교역자가 되어서 일반 교당 교무의 보조자 역할을 충분히 수용해 낼 것이다.

정토회원으로 하여금 주위로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고, 그러면서 신바람나게 자신의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에 와서 가장 손쉬운 방

법이 가까운 교당이나 인연 닿는 교당에 다니게 하여 주위로부터 존경 받으면서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정토회원의 위상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정토회원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몇몇 지도인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수동적 역할에 쫓겨 된다. 이들을 현장교화의 지도자로 나서게 하자. 이것이 많은 정토회원들의 요청이다.(위의 정토회원의 의식연구조사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교당교화에 큰 힘이 되고 함께 중앙교구가 대단한 교화활성화가 일어날 것이다.

원불교 교화는 중앙교구가 살아나야 한다. 200여명의 정토회원이 중앙교구의 교도들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정토회원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스스로 높은 자긍심과 소명은 갖고 산다면 이를 충분히 극복하게 될 것이다.

4. 전무출신 내조자로서의 정토회원

기독교 목사 사모의 임무와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를 손꼽는다면 성실한 내조자로서 목사인 남편을 돕는 일이라고 사모학(師母學)에서 말하고 있다.

전무출신의 부인인 정토회원은 목사의 사모와 비교해 볼 때, 경제적인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과 자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두가지 부담을 더 안고 있다. 그러면서 목사 사모보다 훨씬 존경과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살고 있다.

지금 결혼한 남자 전무출신들은 정토회원이 전무출신을 잘 내조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고 있다. 전무출신이 성숙한 교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훌륭한 내조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토회원은 언제나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어려움 속에서나 가장 중요한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잘 수행하는 묘를 터득해야 할 것이다.

다음 몇가지 전무출신 내조를 위한 자세를 밝혀 본다.

첫째, 마음공부에 재미를 느끼며 살아야 한다.

정토회원이 스스로 정신적 자립을 얻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끊임 없는 마음공부가 수용되어야 한다. 자기 수행에 깊은 재미를 느낄수 있도록 서로 권장해야 한다. 매사를 공부심으로 운용하고 이를 통해 기쁨과 보람으로 살게 해야 한다. 마음공부를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맞아들이고 여기에 함께 열정을 다 쏟아야 할 것이다. 남편인 전무출신이 이를 적극 도와 주어서 이끌어야 한다. 전무출신 가정이 공부로써 맑고 밝고 훈훈하게 채워진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내조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모든 교역활동의 기초가 확립될 것이다.

둘째, 주위 인연을 소중히 가꾸어야 한다.

정토회원은 늘 주위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인간의 아픔과 고통은 대개 인연간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정토회원은 가족과 친지, 이웃등과의 만남에서 항상 人和의 꽃을 피우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전무출신 공동체에서 서로 부담없이 넘나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훈련을 통해서 대화의 기법을 익히고 마음을 진솔하게 여는 법을 실천하여서 주위 인연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호령을 받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정토회원이 인연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잘 가꾸어갈 때 이것이 전무출신 남편에게 대단한 내조가 될 것이다.

셋째, 자기 개성을 살리는 생활이 필요하다.

정토회원은 검소, 절약하는 삶을 즐기고 자기 개성을 독특하게 살리는 취미생활을 통해 주위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밝고 아름답게 열어가야 할 것이다. 행복은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며 작은 것들을 소중히 하여서 이들을 통해 스스로 마음에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고 전무출신의 삶에 큰 힘을 주게 될 것이다.

누구나 자기의 독특한 취향이 있다. 정토회원은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 권리가 있다. 바쁜 중에도 자신을 찾는 길을 찾는다면 이것이 주위사람들에게 밝은 정서를 진작시키고, 교화에 활력을 얻는 중요

한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정토회원은 전문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이들을 틈나는 대로 교단의 각종 기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정토회원은 이를 통해 자기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계속 신장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5. 맺음말 - 정토회원의 소명의식을 고취시키자.

세상에 수많은 직업과 역할이 있다. 전무출신과 정토회원도 그들의 하나로 성직을 수행하는 직업이라 생각한다. 천주교를 보면 신부가 있고 수사가 있다. 수사는 신부와는 달리 드러나지 않는 봉사를 하면서 일생을 의롭게 살아간다. 현재 많은 정토회원들이 내생에서는 정토회원을 하지 않고 차라리 교무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정토회원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주위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정토회원의 위상과 역할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토회원이란 전무출신을 내조하여 전무출신과 함께 성불제중의 과업을 수행하는 숭고한 직업이다. 이제 정토회원은 단지 전무출신의 아내로서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전무출신의 동반자로서 제생의세하는 중요한 성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놀라운 진리적 소명을 일깨워야 한다.

따라서 전무출신의 호칭이 교무로 불리워 지듯이 정토회원의 호칭도 바람직하게 제정되어서 그 호칭에서부터 존중받게 불리워져야 한다. 정토회원이 불교의 보살 정신으로 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속에서 전무출신은 신명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혈심있는 전무출신, 성숙한 인격으로 거듭나는 전무출신의 삶은 바로 이처럼 훌륭한 정토회원이 있기에 가능하며 정토회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기서 전무출신과 정토회원을 둘로 나눌 수 없는 몸이 되어 일원세계를

열어가는 하나의 길을 기쁨과 보람으로 걸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상적인 가정을 이룰 때 자연스럽게 전무출신이나 정토회원을 지원하는 원친 회원들이 수 없이 배출되고 이곳에 전통있는 원불교 일원가정의 공동체 집단이 형성될 것이다.

끝으로 부언하고 싶은 것은, 전무출신 가정은 결혼후 10년까지는 교단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관리가 요청된다. 이 기간동안 정토회원은 원불교의 정서를 이해하고, 적응하며, 스스로 정토회원의 능력과 자질을 내외적으로 향상시키는 시기가 될 것이다. 교단이 바라는 교역자화는 모든 생활이 안정된 후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교단의 각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교단은 이러한 일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서 전무출신 가정이 바로 살아 나가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 참고문헌 -

1. 이경원, 오도철, 이장훈, 정천경, 하명국, 양제우 교무
“정토회원의 의식 조사 연구”(원기 80년도 기획연구), 교정원 기획실, 1995
2. 황의영 “사모학”, 성광문화사, 1977
3. 김경일 “세대교화 제도의 가능성(분석과 전망 14호)”, 수위단사무처, 1996
4. 성도학 “결혼한 전무출신의 가정윤리(분석과 전망 14호)”, 수위단사무처, 1996

